

오늘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2025 JAN
Vol. 682

01

오늘 또
새로운
세상을

2025 JAN
Vol. 682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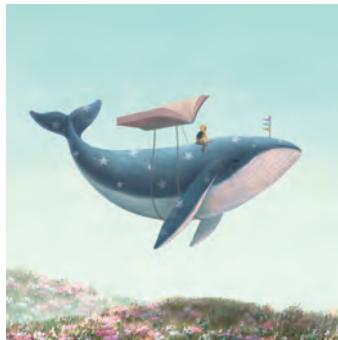
만났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 주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월호에서는 여러분이
달려나갈 ‘새로운’ 날을 그려 봅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K-water Monthly Magazine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우리 웃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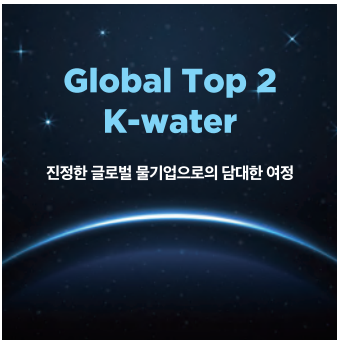
새로운 길 앞에 선
당신에게

함께 즐길 수



새로운 영감이 일렁이는
파주

내일 좋을 수



시대를 이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이야기

Special
THEME

04. New year

- 윤석대 사장 신년사
- 새해 첫 곡 플레이리스트

우리
웃을 수

08. INTRO

10. 일상적 사유

새로운 길 앞에 선 당신에게

14. 일상의 쓸모

세상을 바꾼 새로운 아이디어

함께
즐길 수

22. 다시갈지도

새로운 영감이 일렁이는
파주

30. 보물여지도

파주에서 예술과 마주하기

내일
좋을 수

40. 수타벅스가 간다

단양수도지사

44. 온전한 지구

하늘에서 내리는 플라스틱 비

46. Focus on

- Global Top 2 K-water

52. Live on

- 대전 디지털 물산업밸리 조성사업 기본협약 체결
- 초순수 국산화 플랜트 통수식

16. 사적인 투어

내 동료의 수상한 사생활

20. 오늘 일기

새로움, 다른 말로 설레임

34. 사람人지도

선율이 흐르는 나의 소우주
콩치노 콩크리트 오정수 대표

38. 파주 한 상

작은 콩의 화려한 변신
두부 깐풍기

56. News on

58. 워터피디아

59. 방울특파원

60. 방울사서함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을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창간일 1968년 1월 | 발행일 2025년 1월 2일 | 통권 682호 | 편집 홍보실
발행처 한국수자원공사(www.kwater.or.kr)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 제작·대행·인쇄 이팝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행하는 물 전문 매거진입니다.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이 책에 게재된 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식물성 원료인 콩기름과 친환경 용지를 사용해 인쇄했습니다.



“2025년에는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국 각지와 해외 각국에서 최선을 다하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오늘을 만들어주신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국민에게는 더 안전한 삶을, 국제사회에는 더 나은 물관리를 약속할 수 있었습니다. 극한 기후 속에서도 빈틈없는 물관리로 국민안전을 지키고, 초격차 기술로 세계에 이름을 알린 것은 큰 자량이자 자부심입니다. 나아가 '2035년 글로벌 Top 2 물기업 도약'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그린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초일류 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간 쌓아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질서 재편으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물관리 여건 또한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함 없이 다가오는 미래를 마주해야 합니다. 한발 앞서 위험요인을 찾고 기회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할 절호의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중점 추진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에 충실한 물관리로 국가 물안보와 국민 안전을 실현합니다.

물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명이자 국민안전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성장을 위해 앞다투어 물그릇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K-water는 대한

민국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2030년까지 물그릇 20%를 확충하여 국가 물안보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영향이 적은 대체수자원을 확대하여 극한 기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물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고품질의 물로 첨단산업의 성장을 돕는 일도 중요합니다. 반도체 산단 등에 필요한 물 공급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이 물걱정 없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습니다. 물재해 예방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접목도 확대해야 합니다. 수자원 위성과 빅데이터 기반의 홍수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수도시설 운영과 자산관리로 안전한 물공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과 함께하는 물복원 사업 확대와 선제적 오염원 관리를 통해 청정수자원을 확보해 나갑니다. 이를 통해 새해에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냅니다.

둘째, 지속적으로 기술을 혁신하고, 물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 3대 초격차 기술의 글로벌 사업화를 본격 추진해 나갑니다. 연구개발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글로벌 연구 협력을 강화하여 기술력을 확인받고 새로운 물의 시대, R&D 이니셔티브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첨단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질분석 기술과 수처리 기술을 향후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만드는 일도 필요합니다. SK 하이닉스 초순수 시설을 완벽히 운영해 신뢰를 쌓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의 산업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올해는 국내 최대 해수담수화 시설 운영이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이 시설을 디딤돌로 탄소포집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기후위기 해법을 제시하는 글로벌 기후테크 기업으로 전진합시다. 우리 기술과 역량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수상태양광, 그린수소 등 물에너지사업을 빠르게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사업(PPA)도 지속적으로 늘려 수출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기여해야 합니다. 지역맞춤형 친환경 물특화 도시 조성에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물과 에너지, 환경 분야의 역량을 결합해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활력 넘치는 공간을 창조합시다. 또한 지역이 진정 원하는 지방상수도사업 수행체계로 전환하여 신규 사업개발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댐의 수변·생태·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로컬 브랜딩을 통해 댐이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갑시다.

셋째, 글로벌 물시장 개척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이뤄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독보적입니다. 물-에너지-도시를 아우르는 통합적 역량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프라 역량과 초격차·선도기술의 결합으로 수자원 확보부터 하·폐수 재이용까지 물순환 전 과정에 차별화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사업개발에 매진해야 합니다. 기존 투자사업과 기후·환경 분야 그린 ODA는 후속 해외 투자사업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물·기후테크 분야 혁신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동반진출을 위한 허브 역할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물위원회(AWC)의 국제기구화도 추진합니다.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협업을 확대하여 세계시장에서 물관리는 'K-water'라는 대명사로 통하게 우리의 이름을 아로새깁시다.

마지막으로, 조직 체질을 개선해 건강한 경영체계를 구축합니다.

안전과 청렴은 모든 경영활동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임을 명심하고 안전사고 ZERO 실현과

올바른 안전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상승한 청렴도는 모두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엄격한 윤리의식을 기준으로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올해는 종합청렴도 2등급을 향해 나아갑시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문화와 더 나은 업무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고 나와 내 가족이 함께 행복한 일터를 만듭시다.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일 잘하는 직원이 보상받고 조직과 동료들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이 인정받는 공정한 경영시스템이 더욱 성숙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올해는 푸른 뱀의 해입니다. 뱀은 매년 자신의 껍질을 벗겨내며 성장합니다. 기존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더 이상 진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해묵은 관성이 있다면 과감히 벗어 던지고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탈바꿈해 나갑시다. 험난한 여정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K-water 운영의 한 축을 책임지고 계신 박기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동조합과正道(正道)경영의 길을 함께 뒹아주시는 이삼규 상임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 대표 물관리 기업을 일궈낸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될 시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을 향한 눈부신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 1. 2.
사장 윤석대



새해 첫 곡 플레이리스트

1월 1일, 처음으로 듣는 노래가 한 해의 방향을 정해준다는 말이 있다.
속설에 불과하지만 희망찬 가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정말 좋은 기운이 전해져 오는 것만 같다.
독자들이 추천하는 행복 가득 새해 첫 곡을 함께 들어 보자.

New Year's First Playlist

New Year's First Playlist

New Year's First Playlist

New Year's
First Playlist



독자들이 추천하는
새해 첫 곡



레드벨벳, <Power Up>

놀 때도 일할 때도 즐겁게 해
그래 난 유달리 반짝거렸조
뜨거움도 새로움도 It's mine

주○희(4515)
파워풀한 이 노래를 들으며 반짝이는
내일을 향해 힘차게 전진~



윤하, <오르트구름>

녹이 손 심장에 씌 없이 피는 꿈
무모하대도 믿어 난
나의 여정을 믿어 난

조○민(6725)
윤하의 파워풀한 목소리가 저에게
힘을 줬요.



재지팩트, <Always Awake>

아찔든 간 인생은 딱 한번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난다면
그 순간 내가 기억할 만한 건
잠에서 깬 나일 것 같아

김○영(0958)
꿈이없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2025년이 되길!



아이유, <Celebrity>

잊지 마던 흐린 어둠 사이
왼손으로 그린 별 하나
보이니 그 유일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아야

송○원(9948)
누구나 무엇이트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봄여름가을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서○인(6172)
우리의 삶은 스스로 응원할 때
가장 멋있습니다



가호, <시작>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최○진(8679)
가슴이 두근두근~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노래로 최고입니다!



우주소녀, <이루라>

어두운 밤 속에서
난 빛을 찾을 거야
이루리 이루리라

임○현(1872)
내년엔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정여진, <그래그래>

세상은 나에게 열려 있어
좌절보다 도전함을
반겨주는 세상이

허○균(3649)
새해에는 새로운 회사로 출근합니다.
저 잘 할 수 있겠죵:D

달력의 첫 장을
넘기는 손길이 설렘니다.
올해는
정말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선부른 걱정은 하지 않기로 해요.
어깨에 힘을 조금 풀어보는 거예요. 조금은 가볍게 달리는 거죠.
느리면 어때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이야기들 앞에 멈춰
충분히 그 설렘을 느낀다면, 계속해서 달려 나갈 힘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원하는 곳에 닿을 수 있을 거예요.

advance



계속

새로운 길 앞에 선 당신에게

글. 김지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

한 해가 끝나가는 시기에 진료실에서 유독 더 많이 듣게 되는 말들이 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한 해에 대한 회한이다.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가 따라오는 것이 사람 마음의 특성이라지만, 우울증에서는 부정적 사고와 과도한 자책이 증상으로 동반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다음으로 많이 듣는 말은 새해에 대한 다양한 걱정들이다. 우울과 불안은 동전의 양면처럼 애초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세트로 사람을 괴롭힌다. 이 회한과 걱정에서 사로잡힌, 즉 과거와 미래에만

머무르며 괴로워하고 있는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도록 돌리는 일이 내 직업이다. 주변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자책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시간은 줄어든도록,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약간 더 담담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은 더 삶이 살 만해지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 해 동안 이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온 분들로부터는 다른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 무언가 새로운 걸 하고 싶거나, 더 괜

찮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싶다는 이야기. ‘헬스장을 등록한 뒤 꾸준히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힘으로 현실을 바꾸고 싶어요. 꼭 이직에 성공할 거예요.’, ‘너무 성취에만 몰두해왔는데, 새해에는 빈 시간에 마음 편히 쉴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보려고요.’, ‘힘든 시기에 절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내가 너무 나 자신만 보며 살아왔다는 걸요. 새해에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다녀보려고 해요’ 등등. 무기력과 무망감에서 벗어난 이 모든 말들이 반갑다.



새해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

나 역시 새해에는 변화하고 싶다. 오랜 나
 뿐 습관인 지각도 깨끗이 사라지면 좋겠고,
 더 이상 일도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고, 무의
 미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확
 줄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변화들을 바탕으
 로 더 좋은 정신과 의사, 더 좋은 아빠가 되
 으면 좋겠다. 적다 보니 소망들이 더 떠오
 른다. 지난해 야심 차게 내놓은 책의 반응이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쉬웠던 만큼, 앞으로 출
 간하게 될 책은 더 잘 준비해보고 싶다. 지
 난해 처음으로 출전했던 40대부 농구대회
 에서 최악의 플레이들을 연발하며 팀원들
 에게 미안했던 만큼, 젊은 축에 속하는 기간

이 더 줄어들기 전에 새해에는 꼭 더 잘해보
 고 싶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만 여겨왔
 던 새해 소망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든다. 왜 굳이 ‘새해에는’이라는 단서를 다는
 걸까? 지금부터 변하면 될 것을. 또, 솔직히
 이게 다 가능할까?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잘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인데 ‘새로운 나’로
 환골탈태가 가능할까?
 사람은 바뀔까? 사람은 안 바뀐다는 말들
 이 많지만, 다양한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
 는 정신과 의사의 경험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사람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가

나아갈



용기



그럼에도, 계속 나아갈 용기

“선생님 T조?(MBTI의 F와 T 중)” 진료실에
 서 종종 듣는 말이다. 환자분들에게 공감하
 려 노력하지만, 동시에 한 발짝 떨어져 냉철
 하게 해석해야만 하는 직업의 특성상 내가
 건네는 말이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나 보다.
 지금 적고 있는 이 글 역시 그렇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
 통 없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절
 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한 해 되세
 요!’라는 글은 차마 적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었던 『이중 하

나는 거짓말』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김애란
 작가는 이렇게 글을 맺는다. ‘삶은 가차 없
 고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입힐 테지만 그럼
 에도 우리 모두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를 남
 기고, 의미 있는 이야기 속에 머물다 떠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
 다.’라고.
 그렇다. 삶은 원래 가차 없다. 가차 없이 우
 리의 삶을, 평온하게 살기 바라는 우리의 소
 망을 깨뜨리고 또 깨뜨린다. 그 사실을 나는
 매일같이 진료실에서 목격한다. 새해에도
 고통은 또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 했던 대로 반응할 것이다. 달콤한 새해
 소망을 꿈꾸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새해에도 절망하지 말자는 것이
 다. 좌절은 종말이 아닌 일상이니. 매년 낙
 담하면서도 결국 꺾이지 않고 이어져 지금
 이 순간,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내 안의
 힘을 믿자. 그 힘을 바탕으로 조금씩 작은
 변화들을 쌓아보자. 꿈꾸는 대로 되지는 않
 더라도 그 속에서 좋은 이야기들을, 의미 있
 는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 보자. 나 역시 그
 령게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노력하는 새해
 를 꿈꾼다.

세상을 바꾼 새로운 아이디어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 비범한 행동도 거대한 혁명도 아니다. 단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할 뿐이다. 세상을 바꾼 작지만 위대한 아이디어들을 소개한다.

글. 조수빈

자연에서 힌트를 얻은 발명품

단풍나무에는 열매와 씨앗이 있다. 열매 하나에는 씨앗이 두 개씩 들어있는데, 이 씨앗의 생김새가 특이하다. 씨앗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뺨은 기다랗고 넓적한 이파리가 달려있어 마치 영화 <해리포터>의 퀴디치 볼을 연상케 한다. 이 날개 같은 이파리 덕분에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에서 씨앗이 툭 떨어져 핑그르르 회전하며 멀리까지 날아간다. 바람을 타고 먼 곳까지 날아간 씨앗은 아주 천천히 낙하해 상처를 입지 않은 채로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린다. 땅에 뿌리가 박혀 있는 단풍나무가 먼 곳까지 번식할 수 있는 이유이다.

단풍나무 씨앗의 비행 전략에서 힌트를 얻은 발명품이 있다. 15세기 중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빙글빙글 돌며 멀리까지 날아가는 단풍나무 씨앗을 보고 비행물체의 도면을 그렸다. 이것이 오늘날의 헬리콥터 프로펠러다. 그는 처음 질기고 성긴 아마천에 녹말풀을 먹여 5m 프로펠러를 설계했다. 동력이 충분하지 않아 하늘을 나는데 단번에 성공한 건 아니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뛰어들어 20세기, 마침내 하늘을 날고자 했던 인간의 꿈은 이뤄졌다. 단순히 번식을 위해 진화를 거듭했던 식물이 과학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인간의 꿈을 이루게 해 준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료는 무엇일까.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답은 ‘코카콜라’다. 전 세계에서 매일 19억 개 이상이 판매될 정도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이 음료에도 위기가 있었다.

1900년대 코카콜라의 폭발적인 인기에 위협을 느낀 경쟁 업체에서 유사품을 찍어내기 시작한 것. 당시만 해도 코카콜라 병은 형태가 단순해 모방이 쉬웠다. 이를 막고자 코카콜라에서는 병에 로고를 새겨 넣었지만 ‘코카놀라’, ‘토카콜라’, ‘코크’ 등 교묘하게 스펠링만 하나씩 바꾼 모방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다. 이때 등장한 아이디어가 바로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차별화된 병을 만들자는 거였다.

1915년, 500달러의 포상금을 걸고 열린 디자인 공모전의 조건은 딱 하나였다. ‘어두운 곳에서 만지거나, 깨진 병 조각으로도 코카콜라 병인 줄 알아야 한다’. 이 공모를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곡선형의 콜라병이 만들어지게 됐다. 가운데가 볼록하고 겉면에는 흐르는 듯한 세로 선이 새겨진 모양의 병은 1916년 공식 디자인으로 지정되었으며, 당시 한 조사에 따르면 코카콜라 병을 구분하지 못하는 미국인은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처럼 코카콜라는 새로운 디자인 전략으로 지금까지 음료 산업에서 부동의 원톱 자리를 꿰차고 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



전투식량의 선구자



통조림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1789년, 프랑스 병사들은 나폴레옹의 지휘 아래 유럽 전역을 정복하기 위해 장기간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배고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는 법.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굶주리는 일이 허다했던 병사들 사이에서는 괴혈병이 만연했다. 이에 제대로 된 전투식량의 개발이 절실했다. 신선한 음식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 끝에 니콜라스 아페르의 아이디어가 주목을 받았다. 그는 입구가 넓은 병에 삶은 고기와 채소 등 음식을 넣고 중탕한 다음 코르크 마개와 왁스로 밀봉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일명 ‘병조림’이라는 해결책 덕분에 조리 시간은 비약적으로 줄어들고, 취사도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이는 나폴레옹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유리병은 여전히 무겁고 깨지기 쉬웠다. 이러한 문제는 한 병조림 애호가에게 의해 우연히 해결됐다. 기계공 출신이었던 피터 듀랜트는 추운 겨울날, 차가워진 병조림을 먹기 위해 강통에 음식을 부어 데워 먹었고, 그러다 문득 무릎을 탁 치며 강통을 이용한 통조림을 개발하게 됐다. 병조림보다 가볍고 튼튼한 캔 통조림은 이후 일반 시민들의 식생활에도 혁신을 몰고 왔으며, 오늘날 까지도 식품 산업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내 동료의 수상한 사생활

우리는 옆자리 동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회사에서 말이 없던 직원이 회사 밖에서는 취미 부자이거나, 회사에서는 업무 열정을 불태우던 직원이 집에서 프로 휴식러일수도 있다. 창원권지사의 직원들이 김응수 대리의 취미 생활에 동참했다. 김응수 대리가 초대한 새로운 취미의 세계로 간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창원권지사	김충현 과장	박고운 대리
	김응수 대리	서이현 대리
	김진수 대리	이성우 대리

거제권지사	권소영 사원
-------	--------

회사 밖에서 발견한 동료의 새로운 매력

창원권지사 직원들은 회사 가는 일이 언제나 즐겁다. 오늘은 동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또 어떤 재미난 일이 일어날까 기다려지기 때문이다. 그만큼 ‘동료애’ 하나는 자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분위기가 좋은 지사라고 하면 아마 저희 지사가 세 손가락 안에 들걸요? 지사장님부터 부장님, 차장님까지 모두 직원들을 편하게 대해주시는 데다, 경영과에서도 늘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직원들이 칭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거든요”라는 서이현 대리의 말에 모두가 이견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창원권지사서 5년 가까이 보낸 김충현 과장은 이제 동료들이 없으면 외로울 지경 이란다. “언젠가 외부 행사로 인해 반나절 정도 사무실에 혼자 남겨진 적이 있어요. 적막한 가운데 냉장고 소리와 복사기 소리만 간간히 들리는데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동료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러한 동료애는 회사 밖에서도 이어지는데,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다 보면 동료로서 몰랐던 매력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중 김진수 대리와 김응수 대리는 가장 반전이었던 동료로 서로를 꼽았다. “진수 대리는 회사 안과 밖이 너무 달라요. 회사



에서만 볼 때는 조용한 성격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테니스, 스킨스쿠버 같은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특히 손에 테니스 라켓만 쥐면 굉장히 에너지틱해진다니까요. 신기해요”라는 김응수 대리의 말에 김진수 대리는 “응수 대리도 엄청난 취미 부자예요. 사진 찍는 실력도, 컵테일 만드는 솜씨도, 미술도 모두 수준급이죠. 배우고 싶은 정도라니까요”라며 맞받아쳤다. 실제로 이들은 회사 밖에서 서로가 서로의 취미 선생님이 되기도 한다. 이번에도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에 도전할 취미는 ‘캠핑’이다.



‘캠핑’이라는 낯선 세계 속으로

이들을 캠핑의 세계에 초대한 건 6년 차 캠퍼인 김응수 대리다. “여름 캠핑보다 겨울 캠핑이 더 좋거든요. 화로에 불을 피우고 타닥타닥 불꽃이 터지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지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따끈한 군고구마예요. 달달한 고구마를 먹으면서 불멍하는 재미를 동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선발대로 출발한 4명의 직원들이 창녕의 한 캠핑장에 도착했다. 캠핑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듯 장비를 한가득 챙겨온 김응수 대리. 텐트부터 침낭, 냉장고, 가습기, 테이블, 기어이는 TV까지 등장하자 김진수 대리가 “이게 다 대리님 장비예요?”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현란한 솜씨로 똑딱똑딱 텐트를 설치하고 장비들을 일사불란하게 정리하는 김응수 대리의 곁에서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냉장고 받침대는 왜 필요해요?”라며 질문 세례를 쏟아내는 세 사람. 하지만 열정을 쏟아내는 것도 잠시, 간만에 학구열을 불태우다 보니 이내 배가 고파졌는지 “밥은 언제 먹어요?”라며 김응수 대리를 재촉했다.



우리의 새로운 내일을 응원해

후발대까지 모두 도착하고 드디어 완전체가 된 일곱 사람은 파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서둘러 음식 준비에 돌입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 양고기와 새우소금구이다. 이성우 대리가 새우를 굽기 위해 철판에 소금을 깔자, 김충현 과장은 한쪽에서 양고기를 굽기 시작했고, 서이현 대리는 토르티야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었다. 사방에서 노릇노릇 맛있는 냄새가 퍼지자 박고운 대리도 서둘러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멋진 요리가 완성되고 “일 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라는 우렁찬 건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캠핑을 즐기기 시작했다. 사실 이번 캠핑은 이들에게 조금 특별하다. 창원권지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던 권소영 사원이 작년 하반기 신입사원으로 당당히 입사한 후 함께 온 첫 여행이기 때문이다. 그의 합격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들도 바로 동료들이다. 박고운 대리는 “회사에서는 마냥 해맑고 귀여운 막냇동생 같았는데, 취업 준비를 위해 하루에 열 시간씩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동생이 합격한 것처럼 기뻐죠.”라며 흐뭇한 미소로 권소영 사원을 바라보았다. 새해에 이들은 육아휴직과 전보 등으로 흩어지게 된다. 하지만 설불리 아쉬워하기보다는 동료의 새로운 출발을 온 마음으로 응원하기로 한다. 이 자리가 그리워질 때면 언제든지 한자리에 다시 모여 즐거운 추억을 쌓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마치 모닥불의 불꽃이 사그라들 때쯤 장작을 하나씩 던져 넣으면 다시 불꽃이 살아나는 것처럼 말이다.



Goodbye message



사적인 투어

“우리 인연 포에버~”

김응수 대리, 박고운 대리, 서이현 대리, 이성우 대리, 권소영 사원

언제나 다정하고 따뜻한 우리 동료들. 함께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창원권지사를 떠나게 된 충현 과장님과 진수 대리님! 어디서나 사랑받을 분들이니 걱정은 없어요. 새로운 환경에서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해야 해요! 우리 잊지 말고요~

Goodbye message

“늘 지금처럼 행복하기를!”



김충현 과장, 김진수 대리

여러분과 창원권지사에서 함께 나눈 추억들이 너무 많아 두고두고 생각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물처럼 떠돌다가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

새로움, 다른 말로 설레임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설레임이라는 기분 좋은 감정이 우리를
감싼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경험한 ‘새로운 순간’들을 소개한다.
그 속에 느낀 작은 설렘도 함께 담았다.

정리. 편집실 사진. 각 인터뷰이 제공



영·섬안전보건센터 한정섭

저희 동료들입니다. 뒷모습만 보아도 든든하죠.
2025년도 이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새롭게 시작할 준비 완료!



아산권지사 강하영

지난해 1월 1일, 양평 두물머리에서 해돋이를 봤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새롭고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설렘으로 가슴이 벅찼었던 기억이 나요. 올해도 좋은 일만
일어나길!

금강경영처 김은비

며칠 전부터 새벽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딱 두 번이지만 얼마나 상쾌하게요.
새해에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빠샤!

영산강보관리단 김현국

캄보디아 해외 봉사활동 때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한 시간씩 걸어
다닌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실천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교통비를 아끼고, 그 돈으로 자전거를
선물하는 거죠. 마침내 자전거를
선물할 때의 기쁨이란!



안동권지사 정유진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러닝을 처음 할 때는 몸이
무겁게만 느껴졌는데, 적응될수록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러너스하이의 짜릿한
쾌감도 느껴요.



기획조정실 엄태웅

다사다난했던 2024년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싶어서 덕유산 설산
등반에 도전했습니다. 그간 설악산,
지리산 등 등산을 여러 번 다녀 보았는데
설산은 처음이었어요. 눈이 하얗게 쌓인
산은 또 새롭더라고요.

수자원사업처 서동익

‘아프리카의 지붕’이라 불리는 킬리만자로산을 5박
6일 동안 등반해 일출을 보았습니다. 두번 다시 하기
힘들 새로운 경험이었죠. 지금도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이때의 기억으로 힘을 얻곤 합니다.



새로운 영감이

일렁이는

파주

북한 접경 도시, 군사보호구역...
파주를 수식하는 단어는 꽤 전투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파주는 다르다. 상흔 대신 산뜻한 바람이 맴돌고,
알록달록한 이야기가 감성을 자극하는 도시로 계속해서 변신 중이다.

글, 사진, 성혜선 여행작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평화의 바람이 부는 언덕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우리가 절대 닿지 못할 그곳이 있었다. 군사분계선에서 7km 남쪽으로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실향민을 위해 세워진 임진각 옥상 전망대에 오르면 피폭된 임진강 철교와 자유의 다리, 민간인 통제 지역과 그 너머가 한눈에 들어온다. 철조망으로 막힌 길, 6·25 전쟁 당시 군수 물자를 싣고 가던 중 장단역에서 피폭된 경의선 증기기관차, 끊긴 철로 등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니 전쟁의 아픔과 분단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지만 색색깔의 바람개비들이 날리는 공원 언덕을 거닐며 평화에 대한 소중함도 얻는다.



전쟁 포로를 교환하기 위해 가설한 자유의 다리,
지하 벙커 전시관 등 많은 전쟁 유물들이 있다.
실향민들이 명절이나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찾아와
배례하는 망배단 앞에선 가슴 한쪽 편이 아련해진다.
민간인 출입 통제구역을 연결하는 임진각 평화
곤돌라도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마장호수

호수 위를 가르는 발걸음

호수는 우리나라 어디에나 있지만, 바람 따라 발걸음 따라 출렁대는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곳은 손꼽힌다. 마장호수는 야생화,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해 봄, 가을에 특히 관광객이 많지만, 쾌청하고 고요한 호숫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계절도 생각보다 괜찮다. 산과 호수를 끼고 있어 아름다운 풍경은 말할 것도 없고, 걸음걸음 흔들리는 출렁다리를 걷는 것도 색다른 재미다. 단,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살짝 각오를 해야 할 수 있다. 호수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순환형 산책로가 있어서 물길 따라 산책을 즐기기가 좋다. 따스한 계절엔 수상 레포츠도 하고 낙조까지 보면 딱이다.



호수 위 수상데크와 수변데크 산책로가 600m가량 이어져 호수 풍광을 감상하면서 걷기 좋다. 동절기엔 출렁다리 이용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니 참고해두자.





파주 출판단지

종이책에 파묻히기 좋은 시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겨울에도 출판업계는 봄을 맞고 있다. 국내 굴지의 출판사부터 서점, 북카페, 갤러리, 박물관, 책과 함께 묵어갈 수 있는 북스테이까지 있는 파주 출판단지는 하루 이틀쯤, 책 향기와 글자에 파묻히기 좋다. 책 13만여 권이 빼곡한 지혜의 숲, 금속 활자 3,500만여 자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쇄기가 있는 활자의 숲이 제일 인기다. 하지만 파주 출판단지의 매력에 좀 더 깊이 젖어보고 싶다면 주변의 북카페를 방문해보자. 아늑한 공간에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며 종이책을 넘기다 보면 이게 최고의 겨울 낭만이 아닐까 싶다.

운치 있는 담쟁이 건물에 자리한 '북카페는', 어린이 전문 북카페 '밀크북', 건물 자체만으로도 화제인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현 책방골목에 위치한 고즈넉한 '블루박스'까지. 연령대부터 취향까지 맞춤형인 북카페가 많다.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송제근

취향에 따라 끌리는 대로 걸어보자. 크고 작은 갤러리에서 예술가들의 전시를 둘러보고 캔들 만들기, 은 공방 체험 등도 해볼 수 있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과 카페, 소품 가게들도 많아 데이트 코스로도 추천할 만하다.



헤이리 예술마을

예술로 가득 찬 일상

헤이리 예술마을에 도착하니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예술가와 눈, 그리고 겨울. 왠지 참 어울리는 조합이란 생각이 든다. 헤이리 예술마을은 터를 잡는 그 순간부터 특별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뜻을 모아 황무지에 터를 잡고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짓고 마을을 가꿨다. 되도록 자연과 마을 모습을 그대로 살리고 몇 가지 원칙은 지키되 각자의 개성을 담아 공간 자체가 예술인 마을이 탄생했다. 덕분에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갤러리, 작업실, 공방, 소극장, 레스토랑, 카페 등을 누릴 수 있다. 다채로운 분야의 전시와 공연이 열리고 체험도 가능하다. 아무래도 겨울엔 야외 활동이 어려워 예약이 따르지만, 고요하게 걸을 수 있는 이 계절이 오히려 좋기도 하다.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 이범수

파주에서 예술과 마주하기

글. 조수빈 사진. 박갑순 그림. 위든(witheun)

파주에는 예술이 그물처럼 촘촘히 엮여있다. 책부터 영화, 미디어아트 등 다루는 장르의 폭도 넓다. 차디찬 겨울바람에도 따스한 예술의 향기가 스며있는 파주로 간다.



지혜의 숲

📍 위치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 운영 매일 10:00~20:00
☎ 문의 0507-1335-0144



책으로 지은 세상

파주는 출판문화인들의 꿈이 모여 있는 출판 도시다. 그 중심에 있는 '지혜의 숲'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 활자로 피어나 책이 되어 모이는 곳이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동 서재 지혜의 숲은 입구부터 압도적이다. 입구에서 안쪽으로 이어지는 통로 내내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서가에 뽁뽁하게 꽂힌 책들이 '지혜의 숲'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다. 약 13만 권의 책들은 모두 국내 학자, 전문가 등 개인을 비롯해 출판사의 기증 도서들이다. 지혜의 숲은 총 3개 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1관에서는 개인이 기증한 도서를, 2관에서는 출판사 기증 도서를 만날 수 있는데, 문학, 역

사, 사회과학, 예술 등 다양한 장르에 이르는 책들이 즐비하다. 게다가 넓은 책상이 곳곳에 놓여 있으니 흥미로운 책 한 권을 뽑아 들어 어디서든 편히 읽으면 그만이다. 백색소음과 향긋한 차를 곁들이고 싶다면 2관의 카페로 가면 된다. 2관에서 긴 복도로 된 갤러리를 통과하면 3관에 도착한다. 이곳은 책의 곁에서 하룻밤을 꼬박 지새울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인데, 24시간 개방하고 있어 늦은 밤까지 독서를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공간이다. 온 도시가 적막에 빠진 한밤중 오로지 책의 향기에만 흠뻑 취할 수 있으니 마음이 더없이 넉넉해진다.



영화를 향한 진심으로

한 권의 책으로 태어난 꿈들이 '지혜의 숲'에 모여 있다면, 한 편의 영화가 된 꿈들은 '명필름 아트센터'에 모여 있다. 명필름 아트센터는 1995년 설립된 영화 제작사 명필름에서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영화'라는 주제를 보다 다양한 콘텐츠로 다루고 있다.

우선 약 30년간 50여 편의 영화를 제작해 온 명필름이 궁금하다면 아카이브 룸으로 향하면 된다. <공동경비구역 JSA>,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아이 캔 스피크> 등 명필름의 시선이 담긴 작품들을 아카이빙해 두었을 뿐 아니라, 영화에 등장했던 소품, 수상 트로피 등이 전시되어 있어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와 영화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스크리닝룸은 관람권 없이도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소박한 영화감상실이다. 이곳에서는 단편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이 상시 상영되고 있다. 영화관처럼 자신이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편식 없이 작품을 관람하다 보면 운명처럼 인생작을 만날지도 모른다.

지하에 위치한 영화관은 주말 이틀 동안만 영화를 상영한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작품 수는 제한적이지만 시설의 수준은 웬만한 대형 멀티플렉스 못지않다. 4K 영사시스템과 46개의 스피커를 장착해 영화 본연의 소리와 영상을 정교하게 구현해내는 모습에서 이들이 얼마나 영화에 진심인지 느낄 수 있다.



📍 위치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530-20

🕒 운영 공간별 상이, 홈페이지 참고(<http://mf-art.kr>)

☎ 문의 031-930-6600



뮤지엄 헤이

현실과 환상의 경계

'뮤지엄 헤이'는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뮤지엄 헤이라는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핀란드의 인사말 'Hei'에서 따온 것으로 '반갑고 기분 좋은 안녕'이라는 뜻이다. 이름처럼 이곳에서는 기분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

입구를 들어서서 순간 별천지 같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넓은 벽면과 바닥을 모두 캔버스로 활용해 작품을 담아내고 있는데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다. 어둠 속에 빛나는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노라면 시공간을 초월해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헤이 파크, 헤이 씨어터, 헤이 스퀘어 등의 공간들에서는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시공간, 자연, 일상 등 20여 가지의 콘텐츠를 독특한 매력으로 담아내고 있다. 곳곳에 쉬어갈 수 있는 의자들이

있으니 한참을 앉아 넋을 놓고 있어도 좋다. 작품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끝내 마음에도 큰 울림이 전해진다. 30분마다 상영되는 <르누아르의 순간들>도 놓치지 말자. 프랑스 작가 르누아르의 삶과 작품을 담고 있는데, 마치 작품 속의 한 인물이 된 것만 같은 기묘한 경험을 할 수 있다.

하이라이트 공간은 전시관을 관통하는 70m의 대형 광장이다. 거울을 활용해 광활하고 무한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데, 현실과 환상 그 사이 어디쯤을 거니는 듯한 기분이 느껴진다.

📍 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평화로 885-43

🕒 운영 매일 10:00~19:00

☎ 문의 1588-4817



천국이

있다면

그곳엔

반드시

선율이
흐르는

나의 소우주

콩치노 콩크리트 오정수 대표

차에서, 카페에서, 길거리에서...
음악은 우리 일상 속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르다. 콩치노 콩크리트에서
만큼 음악은 배경이 아닌
주인공이다. 음악이 가지는 아득한
깊이를 탐험해 보자. 오정수 대표가
음악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음악이 준 깊은 울림

주말 아침의 파주는 한산했다. 가는 길목도 그리 소란스럽지 않았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까지
만 해도 그랬다. 그러나 콩치노 콩크리트의 문을 연 순간 웅장한 클래식 선율이 공간을 압도했다.
100년이 넘은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귀가 아닌 가슴을 먼저 울렸다. 오정수 대표가 운
영하는 콩치노 콩크리트는 오로지 음악만 있는 공간이다.

오 대표의 음악 사랑은 역사가 오래됐다. 10대 때부터니 자그마치 40년 세월이다. 처음 음악에
귀가 열린 건 중학생 시절이었다. 방향하던 중학생 오정수에게 라디오 너머로 흘러나오는 클래
식이 위로가 됐다. “십대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그때 음악이
참 위로가 됐어요. ‘가곡의 밤’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즐겨 들었는데, 클래식이니 고전이니 하
는 지식 없이도 그저 선율이 좋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형이 사다 준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일명 워크맨이 음악 사랑의 증폭제 역할을 했
다. 어딜 가든 워크맨과 함께했다. 음악이 있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 줄 그때야 알게 됐
다. 어떤 날에는 천국을 만나기도 했단다. **“비가 억수 같이 쏟아지던 어느 여름이었어요. 비가 잠
깐 그쳤을 때 집 뒤의 야트막한 산에 올라갔거든요. 산 위에서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을 듣고
있는데, 때마침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음악이 있었기에
그 광경이 더 아름다웠던 거겠죠.”**

이후 음악에 대한 그의 사랑은 거침없었다. 20대 초반 음악 잡지를 사 모으고, 음악다방도 문턱이
달도록 다녔다.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을 몽땅 투자해 오디오 장비를 샀고, 스피커와 앰프, 턴테
이블도 사 모았다. 지금까지 번 돈의 90%는 음악에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직 음악을 위한 공간

파주의 콩치노 콩크리트는 오 대표에게 꿈의 집합체다. **“공간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음악이란 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일정 이상의 볼륨으로 들어야 그 에너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도심에서는 도무지 만족스러운 감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곳에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도시의 소음이 음악을 파고드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파주일까. 보통 공연장이나 재즈 클럽 등은 대부분 밀폐되어 있다. 음악과 나, 단 두 가지만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오 대표는 한 가지 더 원했다. 바로 '자연'이다. 파주는 산이 낮고 평야가 많아 시야가 탁 트여 있다. 바로 앞으로 임진강이 흐르고, 강 건너로는 북한을 마주하고 있다. 게다가 해가 늦게 저 여름이면 저녁 아홉 시께에도 노을의 잔상이 남아있다. 오 대표는 이곳에서 음악과 자연이 주는 충만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사실 파주에 음악감상실을 짓겠다는 결심을 하고, 공간이 문을 열기까지는 장장 10년이 넘게 걸렸다. 그 과정이 모두 꿈과 가까워진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지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꽤 애를 먹었던 과정이었으니 바로 오디오를 튜닝하는 일이었다. “일을 벌였으니 음악을 제대로 들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공간에서 음악을 틀어본 적이 없었어요. 쾌감이 느껴지는 음을 이끌어내는 데에만 꼬박 3년이 걸렸어요.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는 기분이었죠.” 음악 한길만을 파는 외골수 같은 오 대표는 사실 본업이 따로 있다. 주중에는 의사로, 주말에는 DJ로 두 가지의 삶을 플레이하는 중이다. 금요일 퇴근 후 자유로를 달려 파주로 오고, 일요일 오후면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 이 생활이 힘들 법도 한데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하나도 힘들지 않단다.



사람인지도

음악이

우리 모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린 시절 음악에게 위로를 받던 그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난히 지친 날이면 오디오 전원을 켜다. 음반을 고르고, 오디오 위에서 볼륨을 섬세하게 조절한 다음 자신이 만들어낸 소리로 음악과 교감한다. 그러는 동안 마음은 자연스레 사그라든다. 자신을 따스하게 휘감는 음악 속에 얼마나 부드럽고 강한 힘이 실려있는지 알기에 이 기나긴 덕질이 쉽게 끝날 리 없다. 다만 콩치노 콩크리트 대표가 되고부터는 음악에 대한 마음이 조금 달라졌다. **“예전에는 단순히 저 혼자 하는 취미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음악에 대한 감동을 잘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세상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각자 앞에 놓인 길을 걷다 보면 다른 길은 잘 못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이들에게 ‘음악’이라는 세계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콩치노 콩크리트를 찾는 이유는 다양하다. 음악을 즐기러 오는 클래식 마니아도 있지만, 공간 자체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때 마니아들에게는 더 심도 있는 세계를 보여주고, 일반인들에게는 음악의 세계를 자유롭게 유영하며 클래식과 재즈의 매력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 대표의 역할이다.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음악을 편히 듣던 이들이 이곳에서 ‘음악을 제대로 듣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오 대표는 만족한다. 입이 닳도록 음악 예찬론을 펼치던 그에게 음악을 곁에 두고 살아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조금 다른 대답을 내놨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음악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음악은 우리의 동반자거든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하니까요. 만약 천국이 있다면, 그곳엔 반드시 음악이 있을 거예요.”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오 대표가 말하는 ‘음악의 세계’에 대한 형태가 점차 뚜렷해졌다. 바로 행복이 짙은 세상이었다.

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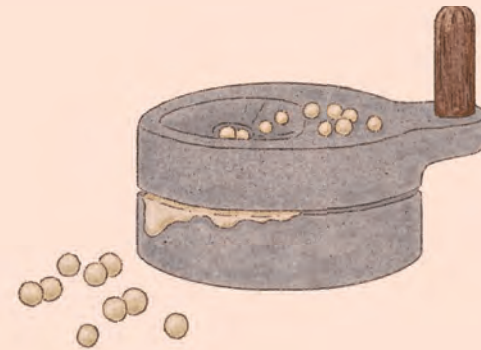


명품 콩으로 유명한 파주의 장단콩. 그냥 먹어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지만
두부로 만들면 더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무엇이든 튀기면 맛이 더 좋아진다는데, 두부는 튀기면 어떤 요리가 될까?

글. 편집실 그림. 차비



두부 깐풍기



작은 콩의 화려한 변신

파주시 장단면에서 난 콩은 예전부터 맛이 좋기로 알려져 있다. 다른 지역에서 난 콩보다 알이 굵고 윤기가 나는 것이 특징인데 그 덕에 파주의 명물로 자리매김했다. 콩은 단백질과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식재료다. 특히 한국인의 입맛을 꼭 잡고 있는 된장, 고추장 등 장류에도 콩이 쓰인다. 콩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도 많다. 대표적인 것은 두부다. 두부는 식탁 위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단골 손님이다. 찌개에 넣어도 맛있고, 들기름에 부쳐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다. 다만 대체로 고소한 맛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요리들이라 심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럴 땐 조금 더 화려하게 요리를 해 보도록 하자. 바로 두부 깐풍기다.

두부 깐풍기는 고기 대신 두부를 활용해 만드는 깐풍기인데, 바삭한 튀김 속 부드러운 두부를 마치 고기처럼 눈속임하는 요리이다. 습습한 두부에 새콤한 양념의 맛이 추가되니 그야말로 두부의 대변신이다. 만드는 방법도 쉽다. 두부에 전분을 묻혀 튀기고, 새콤달콤한 양념과 함께 볶으면 완성이다. 복잡한 과정 없이 간단한 재료들로 만들 수 있으니 오늘 저녁은 치킨 대신 두부 깐풍기를 추천한다.

재료

부침용 두부 한 모, 감자전분 2T, 소금 조금, 양파 1/2개, 파프리카 1/2개

양념장 재료

물 2T, 굴소스 2T, 식초 2T, 진간장 1T, 설탕 1T, 고춧가루 1T, 다진 마늘 1T, 대파, 청양고추

레시피

1. 두부와 양파, 파프리카를 한입 크기로 썬다.
2. 두부는 물기를 빼고 소금을 적당히 뿌려 밀간한다.
3. 밀간한 두부에 감자전분을 골고루 묻힌다.
4.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고 중약불에서 두부를 튀기듯 노릇하게 부친다.
5. 부친 두부에 양념장과 채소를 넣고 2분 정도 같이 볶아주면 완성!

※ 양념장 : 양념장 재료에 대파와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 넣어면 새콤한 양념장이 똑딱 완성된다.

안녕은 우리의 또 다른 시작 단양수도지사

끝과 시작의 경계에서 우리는 묘한 감정을 느낀다.
아쉬움과 설렘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단양수도지사에게 새해의 힘찬 기운을 전하기 위해 수타벅스가
출발했다. 아쉬움일랑 없던 단양수도지사의 완벽하게 즐거웠던
시간을 담았다.

글. 조수빈 사진. 황지현 영상. 최의인



수타벅스가 왔대요~

진짜?

우리 같이 먹어요

수타벅스가 간다



단양수도지사는 나의 자랑!

굽이치는 남한강과 위용 있는 소백산. 이 멋들어진 풍경 속을 한참이나 달려 단양수도지사에 도착했다. 한 달 전 이곳으로 첫 발령을 받은 시설운영팀 나현성 사원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푸른 강과 산이 바로 보이는 데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날고 있었거든요. 정말 멋진 풍경이었어요. 게다가 직원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라며 지사의 첫 인상을 떠올렸다. 단양수도지사는 타 지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나현성 사원의 말처럼 이곳에서 뿔어져 나오는 행복의 크기는 어느 곳과 견주어

도 한 치 부족함이 없다고 직원들은 입을 모았다. 그 비결 중 하나는 힘든 일도 특별한 추억으로 승화시키는 긍정적인 마인드다. 그중에서도 관망관리팀 이준서 대리는 가장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로 지난 2023년 크리스마스를 꼽았다. “직원 모두가 각자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와중에 관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둘러 대응한 덕분에 빠르게 누수를 차단했죠. 크리스마스를 지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보냈던 특별한 기억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라며 웃었다.

오가는 덕담 속에 싹트는 정

2025년 단양수도지사에는 여러 변화가 생긴다. 떠나가는 직원도 있고, 새로 오는 직원도 있기에 조금은 싱숭생숭한 마음이다. 그런 직원들을 위해 이준서 대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단양수도지사를 떠나기 전 그간 감사했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수타벅스를 호출했다. “사실 이전에도 몇 번 수타벅스 이벤트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떨어졌었거든요. 단양수도지사에서는 마지막 신청이었는데, 다행히 이곳을 떠나기 전에 동료들에게 깜짝선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마운게 참 많았는데 따뜻한 커피로나마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티타임을 갖자며 수타벅스로 모여든 직원들. 얼죽아도 “따뜻한 아메리카노요~”를 외치게 만드는 날씨였음에도 직원들은 이날만을 기다린 듯 얼굴에 설렘이 가득했다. 오늘의 간식은 챌러스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챌러스를 다 먹어 버렸다며 “하나 더 주세요~”를 외치는 장춘택 대리에게 인심 좋은 수타벅스가 챌러스를 하나 더 건네자 엄지를 척 내세웠다. 따뜻한 커피와 챌러스를 손에 쥔 직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2024년을 돌아보며 고생 많았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새해 덕담으로 힘찬 기운을 불어넣기도 했다. 그런 직원들을 바라보며 현정재 지사장은 “저희 직원들 정말 분위기 좋죠?”라며 넌지시 자랑을 건넸다. 한창 겨울이었는데도, 신기하게도 어딘가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다. 2025년 누군가는 떠나가고, 누군가는 남겠지만 이곳에 묻어있는 행복한 기운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 interview ●

여러분이 저의 행복이에요!

관망관리팀 이준서 대리

3년을 넘게 있던 단양수도지사를 떠나 다른 부서로 가게 되었어요. 함께했던 시간이 오래된 만큼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료들을 보며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떠나기 전 마지막 선물을 줄 수 있어 참 다행이에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단양수도지사를 잘 부탁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수타벅스와 함께한 단양수도지사의 즐거운 모습을 만나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플라스틱



글. 박상현 조선일보 기자

첫눈이 쏟아진 11월 말,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에 나가 함께 눈 내리는 걸 구경했습니다. 겨울 한복판에나 볼 법한 많은 눈이 늦가을 끝자락에 내렸습니다. 한 살 아이는 쏟아지는 눈이 신기한지 연신 하늘을 올려다 보고, 고사리손을 짝 펴 손바닥에서 천천히 녹아가는 눈꽃을 바라봤습니다. 축축한 습설(濕雪)이었던 탓에 놀이터에서 보낸 시간이 길지 않았는데도 눈은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칼바람까지 불기 시작해 눈발에 발 도장을 남겨두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발을 맞은 외투를 말리려고 식탁 의자에 걸어두기를 몇 시간. 눈 흔적은 사라졌는데 먼지 얼룩이 남아있었습니다.

눈은 대기 중 수증기가 높은 곳에서 찬 공기를 만나 얼어붙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눈에 대한 순수한 정의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맞는 눈에는 물뿐만 아니라 각종 먼지와 오염물질이 뒤섞여 있습니다. 한겨울로 갈수록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눈에는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많이 섞이게 됩니다. 석탄 난방을 떼며 미세먼지 인자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많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눈을 ‘회색 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서울에서 새하얗고 깨끗한 눈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나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걱정되는 것은 ‘플라스틱 눈’입니다. 5mm 미만으로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이 대기를 부유하다가 하늘 높이 올라가 눈과 함께 지상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일본 와세다대 연구팀은 후지산과 오야마산 해발 1,300~3,776m에 있는 구름을 분석한 결과 각종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확인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구름 시료를 살펴보니 1L당 6.7~13.9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었고, 이중엔 수분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수증기가 얼어서 떨어지는 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이 물을 빨아들이며 무거워져 떨어지는 ‘플라스틱 눈’이 실제로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플라스틱 제품을 눈과 비로 맞고, 숨으로 들이마실 날도 살면서 더 많아진 셈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서 처음 배설한 태변(胎便)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량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산모의 몸을 통해 태아의 소화기로 이동한 것입니다. 미국 뉴욕대와 중국 난카이대 공동 연구팀이 뉴욕주의 신생아 3명의 태변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이중 2명에게서 태변 1g당 1만2,000ng(나노그램:10억분의 1g)과 3,200ng의 페트(PET) 성분이 각각 검출됐습니다. PET는 생수병 등에 사용되는 가장 일상적인 플라스틱입니다. 뉴욕대 연구팀은 생후 1년 이내 유아 6명에 대해서도 대변 검사를 했는데, 6명 모두에게서 1g당 5,700~8만2,000ng의 PET 성분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플라스틱 소재 카펫에서 뒹굴거나, 합성섬유를 빨고 씹으면서 미세 플라스틱 섭취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쩌면 눈은 인간이 환경에 낸 상처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는 모든 것이 순환하도록 설계되었기에, 인간이 만들어낸 미세먼지나 플라스틱도 어떤 형태로든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체감하지 못할 뿐 우리 일상엔 미세하게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담요를 두르고 창밖으로 눈 구경을 이어갔습니다. 늦가을까지 포근했던 탓에 아직 낙엽이 되지 않은 단풍이 나무에 붙어있었고, 그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단풍과 폭설이 한데 섞인 아이러니가 망가진 날씨 패턴과 기후위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살면서 미세먼지도, 플라스틱도 없는 순수한 눈을 만날 날이 올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어느 겨울날에는 하늘에서 깨끗한 눈이 내리길 기대해봅니다.

Global Top 2 K-water

진정한 글로벌 물기업으로의 담대한 여정

K-신드롬의 중심에서 세계 유일의 물 종합기업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 물분야 아젠다를 주도하며 글로벌 물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Top 2 물기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새로운 성장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글. 편집실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블루 골드의 시대, 새로운 도전과 기회

새로운 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대비 1.5도를 넘겼다. 파리기후협약의 1.5도는 연평균이 아닌 20년 평균을 의미하지만, 학계에서는 계속해서 기온이 상승한다면 기후변화가 티핑포인트에 도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폭염, 홍수, 태풍 등 기후현상이 한층 강해져 전보다 더 큰 재난이 일상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수자원의 가용성과 홍수 방어능력, 물 인프라 시설의 안정성 모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전 세계 인구 증가와 도시화 가속으로 물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와 자동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또한 새로운 물 수요를 촉발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물 수요는 지난 40년간 약 1%씩 증가해왔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 물 수요는 2000년 대비 1.5배 증가하며, 특히 제조 부문의 물 수요는 2020년 대비 3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규모 신규 수자원 개발은 환경·사회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존 물관리 인프라의 노후화와 저수지 퇴사 등으로 실질적 공급량은 감소하고 있다. 또한, 물 재해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수문학적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물 공급 안정성은 크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 위기의 시대,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물 재해를 예방하는 '물안보(water security)' 역량은 글로벌경제의 새로운 메가트렌드가 되고 있다. 물관리 능력이 곧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것이다.

글로벌 물기업이 되기 위한 조건

시장에서 글로벌기업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매출액이다. 매출 규모는 기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미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물산업 조사기관인 GWI가 지난 2022년 기준 매출액 10억 달러 이상의 물기업 73개사를 선정했다. 전체 매출 규모 기준 세계 1위 물기업은 매출액 27조 원의 프랑스 Veolia다. 이어 미국의 Core&Main, 영국의 Ferguson, 미국의 Xylem 등이 뒤를 이었다. 세계적인 물기업들의 특징은 해외 매출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Veolia는 매출액의 82%, Xylem은 약 50%가 해외에서 올린 매출이다. 또한, 글로벌 물기업들은 기후위기에 대비해 물안보를 강화하고, 물관리 효율 제고를 위한 기술력 향상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 인프라 확충, 첨단수처리, 해수담수화나 하수재이용과 같은 대체수자원 개발 등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물관리 기술을 확대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디지털 물관리는 기후재해 예방, 원가절감 등 운영효율 제고, 고객서비스 향상, 물인프라 자산관리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2023년 기준 연간 매출액은 4.6조 원으로 이중 해외 매출은 약 136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물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해외 투자사업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디지털 물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사업 수주 등을 통해 해외 매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 세계 물 수요 전망



제조 부문 물 수요 전망



디지털 물관리 초격차·글로벌 선도기술 등 혁신역량

한국수자원공사는 50년 이상 축적된 물관리 역량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혁신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하고 있다.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SWNM)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초격차 물관리 기술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팀 네이버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시(市)의 물관리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행 중이며, 화성 AI 정수장은 전 세계 물관리 시설 중 최초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하는 ‘글로벌 등대(Global Lighthouse Network)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스마트 관망관리(SWNM)는 국내 우수율 제고 성과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덴파사르(Denpasar)와 스마랑(Semarang)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정에너지와 첨단수처리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서울 롯데타워에 공급되는 수열에너지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이며,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인 강원도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도 조성에 한창이다. 공사가 운영 중인 시화호 조력발전소(시설용량 254MW)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 시설이며, 성남정수장의 소수력 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사례는 국내 최초로, 수소 생태계 구축과 수소산업 촉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합천다목적댐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의 경우 수상태양광 사업 최초로 직접전력거래 협약을 맺어 시행되며 국내 기업의 RE100 달성 지원과 동시에 마을주민에게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추진된다.

국가전략사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인 용수공급 기반도 조성하고 있다. 첨단산업의 필수재인 초순수 생산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올해 상반기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공정에 공급을 개시한다. 대산임해산업단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 중으로, 사업이 준공되면 가뭄에 취약하고 고질적인 수량 부족을 겪던 충남서부권 지역에 하루 10만 톤의 용수가 공급된다.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Digital GARAM™

기상, 수문 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종합 물관리 플랫폼



AI 정수장

AI 기반 정수처리 공정 자율운영

수량, 수질 등 실시간 정수장 운영 데이터를 취득·분석하여 AI 알고리즘을 통해 정수처리공정을 자동화한 미래형 정수장



SWNM

스마트 관망관리 솔루션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oT, AI 기술을 결합해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관망관리기술



1 화성 AI 정수장을 방문한 아프리카 대륙 정상들
2 제10차 세계물포럼 특별세션에서 소개된 3대 초격차 기술

물-도시-에너지를 아우르는 독보적 사업 포트폴리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도시-에너지를 통합한 보기 드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물, 에너지, 도시 분야는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와 직결되고 기후위기에 가장 크게 노출이 되어 있는 분야다. 각각의 영역에서도 매력적인 사업이지만 기후위기와 도시화 등 환경·사회적 문제가 심화하면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물, 에너지, 도시가 결합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물과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은 수력, 조력, 그린수소 등 물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수처리와 용수 공급 과정에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물과 도시를 영위하는 기업은 물 재해에 안전한 물순환 기반의 도시를 조성하고 도시에서 사용하는 물을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에너지와 도시 분야 동시에 특화역량을 보유한다면 수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도시에 공급하고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는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현할 수 있다.

30년 이상 쌓아온 사업 경험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한국수자원공사는 1993년 중국 산서성 분하(汾河)강 수자원 조사사업을 필두로 공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기업이다. 그간 ODA사업과 기술용역사업 등을 수행해 왔으며 2009년에는 최초의 민간협력사업인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을 수주하여 2017년 상업발전을 개시하였다.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45개국에서 161개, 3조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수행 또는 완료하며 해외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탄탄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역시 강점이다. 2016년 공사 주도로 설립한 아시아물위원회(Asia Water Council)에는 현재 26개국 171개 회원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태국 등 중앙정부가 참여하고 있어 실행력 측면에서 다른 물 관련 국제 조직과 차별화된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광역상수도를 건설하는 까리안(Karian) 상수도사업은 아시아물위원회를 통해 사업화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적 측면에서는 민간 기업과 같지만, 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AAWC), 한-메콩협력센터 등을 통해 물 관리 아젠다와 협력 측면에서는 정부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수열에너지

물이 가진 열에너지를 건물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기술로, 국내 최초 데이터 집적단지인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



해수담수화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해 순도 높은 물을 생산하는 기술로, 다각적 수원 확보로 안정적 물 공급 기여



초순수

첨단산업의 필수재료, 초순수 생산기술 자립 및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린수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 성남정수장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확대



조력발전

조석간만의 차와 해수의 흐름을 이용하는 기술로, 국내 유일이자 세계 최대 규모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운영



수상태양광

화석연료 대비 환경 영향이 적고 대규모 용량 개발이 가능한 기술로, 댐 유희 수면을 활용해 태양광 모듈 설치·운영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한 전략

한국수자원공사는 '글로벌 Top 2 물기업'이라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경로로 방향을 전환하는 성장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3대 초격차 기술과 글로벌 선도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수력발전, 상수도 등 인프라 개발사업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고, 초순수, 해수담수화 등 고부가가치 첨단수처리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기존 인프라에는 디지털 물 솔루션을 제공하고, 도시조성 역량을 기반으로 탄소중립도시, 스마트시티 등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수요량 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니즈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상태양광, 조력 등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사업방식에 맞는 획기적인 사업개발 역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글로벌 전문기관과의 공동 마케팅,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및 디지털 상품화 등을 통해 사업소싱을 강화하고, 해외 물기업 지분인수 등을 통해 선진국 물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SK하이닉스 대상 초순수 공급과 같은 B2B사업을 해외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ODA사업을 발굴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후속사업으로 연계하는 등 해외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세 번째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아시아물위원회(AWC)의 국제기구화 추진을 통해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재원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물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1997년부터 운영해 온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해외 물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고객을 선점하고, 교육 네트워킹을 발전시켜 중점 진출 국가의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교두보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계 최대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 EU 호라이즌(Horizon) 프로그램 등 공동연구 참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R&D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규 해외사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 전 직원이 해외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행하는 'One Team K-water'로 사업수행 체계를 전환한다.

초격차 기술과 글로벌 선도기술은 국내 실증과 동시에 수출이 필요하고, 사업 여건에 따라 적용되는 요소기술을 고도로 맞춤화해야 한다. 따라서 글로벌사업본부는 마케팅, 사업소싱, 리스크관리 등에 집중하고 각 사업부서가 과업을 수행하여 글로벌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내부 구성원 모두가 글로벌 물기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참여, 국제기구 업무 경험 등 직원들의 글로벌 경험을 확대하여 해외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23년 새로운 물의 시대를 개척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고, 2024년에는 글로벌 물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재정비를 마쳤다. 이제 한국수자원공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의미있는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2030년 해외사업 누적 수주 20조 원, 2035년 해외 매출 50% 달성이라는 야심찬 목표 실현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의 모든 구성원이 글로벌사업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 글로벌 Top 2 물기업을 향한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TOP 2 물기업 도약

글로벌 물시장 선도

전 지구적 난제가 된 새로운 물의 시대에 맞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이 되기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새로운 도전

2035

해외 분야 매출 50% 이상



물관리·기후 분야
초격차 기술 10개 이상 개발



전 세계 사업거점
30개 이상 운영



해외사업 수행 가능
인력 50% 이상 확보



100개 이상 글로벌
협력국가 네트워크 구축

2025

글로벌 스케일업 전략 본격 추진

2030

해외사업 수주 20조 원 달성

2024

새로운 도전의 시작

글로벌 물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대전

대전 디지털 물산업밸리 조성사업 기본협약 체결

글. 편집실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시, 대덕구가 대전을 글로벌 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다. 그 첫걸음으로 디지털 물산업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 물산업 혁신 성장의 거점을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했다.



물산업의 중심지를 꿈꾸다

명실상부한 과학도시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대전이 ‘글로벌 물 허브의 중심’이라는 타이틀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다. 지난 12월 23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함께 ‘대전 디지털 물산업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한국수자원공사와 대전시가 체결한 ‘전략적 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과제로 추진됐으며, 대전을 글로벌 물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 물산업밸리’는 대전 대덕구 신대동 일원에 약 315천㎡(약 9.5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물산업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는 2022년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5년도 공공기관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디지털 물산업밸리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와 대덕구는 해당 산업단지를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주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일원

대전 디지털 물산업밸리 조성사업 개요	
사업목적	물산업 혁신 성장 거점 마련 및 지역의 균형 발전 동참
사업비	약 2,184억 원 (시 477억 원 포함)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일원
면적	315천㎡ (9.5만 평)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돌입하게 될 디지털 물산업밸리는 대전의 풍부한 과학 기술 인프라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축적해 온 역량의 집합체로서 물 분야에 특화된 새로운 미래 산업 생태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덧붙여 물 관련 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 기술 개발, 상용화를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대전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방시대의 혁신도 견인하게 된다. 윤석대 사장은 “이번 협약은 대전이 미래 글로벌 물 산업의 중심지로 새롭게 도약하고, 지방시대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는 출발점으로 그 의미가 크다”라며, “대전이 물 분야에 있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고 기업이 찾아오며, 인재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밀착형 경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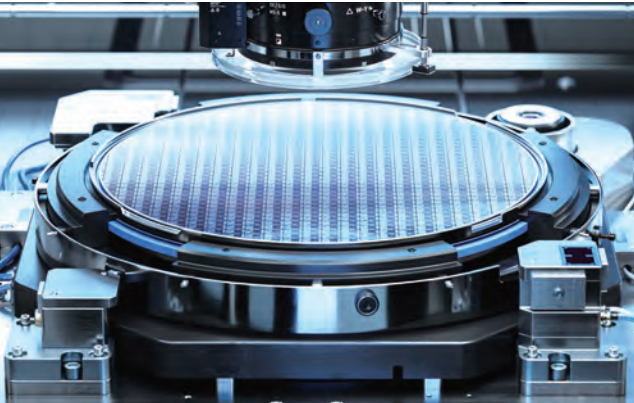


국산 기술로 만들어낸 ‘초순수’ 결실

초순수 국산화 플랜트 통수식

글. 편집실 자료. 한국수자원공사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초순수 기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그간 해외기술에 의존해오던 초순수가 100% 국산 기술로 생산,
국내 최초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공급됐다.



초순수 국산화 시대의 신호탄

지난 12월 9일 초순수 국산화 실증플랜트 통수식이 개최되었다. 이로써 국내 기술로 만든 초순수가 실전에 투입된다. ‘초순수’란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의 물이며, 주로 반도체 표면의 각종 부산물과 오염물질 등을 세척하는데 사용된다. 반도체 산업 이외에도 의료·바이오·화학·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필수 자원이다. 그러나 고난도의 수처리 기술의 개발 진입 장벽이 높은 탓에 해외기술에만 의존해오던 실정이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초순수 기술 자립을 위해 기술개발에 돌입했다. 하루 25톤 규모의 초순수 공급이 가능한 모형플랜트를 활용해 설계 및 운영 기술을 연구하는 등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진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도 발맞추기 위해 2021년부터는 환경부 연구사업에 참여해 초순수 국산화 속도를 높였고, SK실트론 구미 제2공장에 실증플랜트를 구축하고, 알고리즘 기술 등을 개발했다.

그 결과, ‘초순수 국산화’라는 목표에 조금씩 가까워졌다. 지난 2023년에는 국산 기술과 외산 장비를 활용해 하루 1,200톤의 초순수 공급에 성공했으며, 2024년 12월에는 설계·운영 100%, 시공기술 및 핵심 기자재 70% 국산화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번 초순수 국산화 실증플랜트 통수식은 외국에 의존해 오던 현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스스로 초순수 기술의 주권을 잡게 되었다는 데에 의미가 깊다. 이번 통수식을 시작으로 SK실트론은 하루 2,400톤의 국산 초순수를 활용해 웨이퍼를 생산하게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추가 연구를 통해 핵심 기자재 국산화율 100%에 도전하며, 초순수 기술을 국내외 반도체 시설 등에 활용해 상용화를 이룰 계획이다. 이로써 국가 첨단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 2040년에는 글로벌 초순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0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협약 체결



지난 11월 27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전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단계별 용수공급 계획, 하수재이용 등의 수원 확보, 기관별 사업비 분담, 기타 물 산업 진흥 협력 등이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로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하루 107.2만㎡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질의 풍부한 물을 확보하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협약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안정적 용수공급 문제를 상당수 해소하는데 주효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대 사장은 “반도체 산업의 기초 체력과 같은 안정적 물 공급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가 걸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원팀이 되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02 필리핀 뉴클락시티에 대규모 상하수도 사업 공급 추진



필리핀 정부는 수도 마닐라의 인구 팽창과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분산을 위해 인구 120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뉴클락시티를 조성하고 있다. 신도시 조성에 있어 물관리는 주요 난제이지만, 가뭄 및 홍수 등으로 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의 상수도보급률은 약 40% 수준. 수도 마닐라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우물물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필리핀 기지전환개발청의 요청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방안 구상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갓댐 운영 등을 통해 현지 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등 국내 기업들과 원팀으로 개발방안 구체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 8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제안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총 1조 원대로, 2026년부터 2050년까지 1단계로 취수원 개발, 상하수도 통합관리를 포함한 물 인프라 건설·운영이 주요 골자다.



03 AI 정수장 국제표준 개발 첫발

11월 27일 국제표준화기구 상하수도서비스 분야 스마트물관리 워킹그룹(ISO/TC224/WG15)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신규 제안이 승인되면서 AI 정수장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이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신규 표준 안인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식수 서비스관리 가이드라인’은 공공 및 민간 수도서비스 업체가 서비스 제공 시 AI 활용을 위한 일반적인 사양, 규격 등을 정의하는 지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추진 중인 누산타라 탄소중립 정수장에 우선적으로 AI 정수장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표준제정을 통해 물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기술 진단과 함께 해당 국가 실정에 맞는 표준 도입을 자문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04 베트남 물시장 진출 본격화

기후변화로 가뭄과 염류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에서 깨끗한 물 확보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베트남 수처리 기업 푸미빈 및 GS 민흥시키키와 수도 호찌민 인근 산업단지의 정수·하수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상하수도시설 지분인수에 관한 인수협력 양해각서(MOA)를 각각 체결했다. 초기 투자 리스크를 낮추고 안정적인 시장 탐색을 위해 현지 기업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향후 각 기관과 공동으로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물분야에 특화된 전문성을 활용, 현지에 기술 및 시설 운영관리 등을 지원하며 후속 사업 모델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05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수자원공사가 ‘2024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일·가정 양립, 직무몰입 공직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육아 공백제로(ZERO) K-water형 가족친화 근무제도 완성’을 주제로 직원의 육아 공백 어려움을 해소하여 행복한 직장문화를 구축하고자 한 성과를 높이 인정받았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격주 4일 근무, 만 8세 자녀 직원 월 32시간 재택근무 등 육아집중형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자 승진 차별 해소, 직장어린이집 야간 보육 등 가족친화경영이 근간이 된 개선방안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확대할 계획이다.



동글동글

예쁜 눈사람 만들기

함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날에 눈사람이 빠지면
아쉽다. 그런데 눈사람을 예쁘게 만들려면
약간의 기세가 필요하다. 장갑을 끼고 만드는
것보다 맨손으로 만들어야 눈을 잘 뭉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의 특성을 파악해 예쁜 눈사람을
만들어 보자.

글. 편집실

눈이 펄펄 쏟아지고,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면 사람들은 눈사람을 만들
고 눈싸움도 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눈이 잘 뭉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약 손재주를 원망하고 있다면 이제 눈을 탓해보자. 아
마 지난번에 내린 눈과는 특성이 다른 눈이 내렸을 확률이 높으니 말이
다. ‘눈’이란 날씨가 추워지면서 구름 속의 작은 물방울들이 얼고, 얼음
알갱이가 되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눈사람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눈의 습도다.

눈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 눈사람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눈은 함
박눈이다. 함박눈은 단단한 얼음 알갱이 주변에 물방울이 엉겨 붙어 있
다. 이 물방울들이 눈을 잘 뭉칠 수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해준다. 한마디
로 약간은 축축하고 따뜻한 눈이 잘 뭉쳐진다. 반면 30도 이하에서 만
들어져 수분 없이 얼음으로만 이루어진 싹락눈과 땅에 떨어지자마자
녹는 진눈깨비로는 눈사람을 만들기 힘들다.

아무리 함박눈이라고 해도 눈이 잘 안 뭉쳐질 때가 있다. 눈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눈의 겉면에 포함된 수분이 증발하며 습기가 사라진 탓이
다. 그럴 땐 손으로 눈을 조금씩 녹여 주면 좋다. 손의 온도에 눈의 겉면
이 조금씩 녹으면 눈이 더 잘 뭉쳐져 눈사람을 더 동글동글하게 만들
수 있다. 다만 너무 오래 장갑을 벗고 있으면 동상에 걸릴 수도 있으니,
눈에 어느 정도 물기가 생겼다면 반드시 다시 장갑을 끼도록 하자.

눈의 습도

★방물특파원★

#취미는소통 #특기는귀여움

매달 더욱 알차고 다채로운 소식으로 꾸며지는 K-water SNS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튜브

수돗물 누수 잡아라! 전자통신직 VLOG

바쁘다 바빠 그래도 좋아~
깨끗한 물을 지켜내는 내가 좋아~

#직장인브이로그 #금강유역협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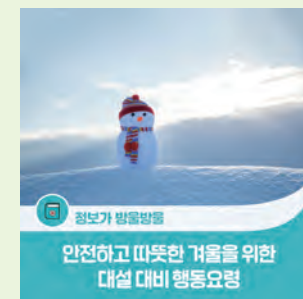
#스마트관망관리

WWW.YOUTUBE.COM/KWATERTV



블로그

BLOG.NAVER.COM/ILOVEKWATER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대설대비 행동요령

#사전점검 #월동용품
#행동요령

X(트위터)

TWITTER.COM/KWATER_TWITT



직장인도
방향이 필요해!

#좋았던시절
#지금도좋아
#진짜야

페이스북

WWW.FACEBOOK.COM/ KWATERWORLD



섬진강 따라 떠나는
겨울 물길여행

#임실창고1964 #섬진강댐
#사선대조각공원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WATER_OFFICIAL



어떡하지
올해 더 귀여워져 버렸다

#방물네컷 #자화자찬
#자존감만렙



<물, 자연 그리고 사람>
2024 어워드 결과 발표
사보에 대한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EVENT 01
루돌프 방울이 찾기 이벤트

이벤트 경품
커피 기프티콘 10명

- | | |
|-----------|-----------|
| 서○실(3220) | 정○하(3055) |
| 김○현(4545) | 김○기(3179) |
| 엄○희(6496) | 박○정(8208) |
| 정○생(2532) | 고○림(6224) |
| 최○하(9008) | 김○희(8888) |

EVENT 02
편지지 인증샷 이벤트

이벤트 경품
방울이 유리컵 5명

- | |
|-----------|
| 김○리(8576) |
| 유○아(4774) |
| 서○름(8815) |
| 전○주(4945) |
| 서○민(5155) |

독자 선정 2024 최고의 기사

1 RANKING
응답하라
1974 9월호

김○운(0964)

9월호의 스페셜한 기사였던 ‘응답하라 1974’를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레트로 감성이 뽐뽐 나오던 시절로 시간 여행을 떠났던 직원들의 사진과 기사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훈(2732)

대전 이전 초창기 시절 선배들의 험난했던 정착기와 좌충우돌 이야기가 재미있었어요. ‘선배’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아(9688)

본사 이전에 얹힌 직원들의 노고와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주셔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더욱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길도 응원하겠습니다~

2 RANKING
수처리기술 태극전사
허정보 선수 인터뷰 11월호

김○화(1602)

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다음 단계를 위해 달려가는 허정보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허정보 선수의 열정에 저 또한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3 RANKING
수타벽스가 간다
2024 하반기 신입사원편 12월호

배○순(7262)

신입사원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부족했던 저를 끌어주었던 멘토가 생각났어요. 간만에 그리운 멘토에게 연락해 보려고요!



EVENT 01

<물, 자연 그리고 사람>의 후기를 들려 주세요

1월호 사보 및 웹진을 읽은 후 다양한 감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 주세요. 독자 후기를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 | |
|--------|----------------------|
| 참여방법 | QR코드 접속 후 구글폼 작성 |
| 이벤트 경품 | 교보문고 기프티카드 3만원 권(5명) |
| 접수 마감일 | 1월 20일 |
| 선물 발송일 | 1월 31일 |



응모하기

검색창에 한국수자원공사 웹진을 검색해 보세요!

한국수자원공사 웹진

EVENT 02

#넌센스 이모지 이벤트

다음 이모지를 보고 정답을 맞춰 주세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 물기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참여방법
- 1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 2 1:1 채팅방 클릭
 - 3 정답/성함/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 | | |
|--------|-----------------|
| 이벤트 경품 | 커피 음료 기프티콘(10명) |
| 접수 마감일 | 1월 20일 |
| 선물 발송일 | 1월 31일 |



응모하기



※1월 10일까지 선물을 못 받으신 분은 070-5069-9500으로 전화주세요.

★★★★★ <물, 자연 그리고 사람> 독자들의 방울이 편지지 자랑

여러분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에서 준비한 편지지에 어떤 사랑을 담았나요? 지난해 방울이 편지지로 마음을 전달했던 독자들의 후기를 소개합니다. 2025년에도 귀염뽀짝한 방울이 편지지는 계속됩니다.
그럼 많·관·부!



유○아(4774)

올해도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방울이와
함께 해 더욱 따뜻할 것 같아요!



김○남(5892)

커다란 뽀뽀로 상자에
아낌없이 담아둔 제 마음을
받아 주세요(ㅎㅎ)



박○우(3477)

(특) 오다 주웠다~
사랑은 특별히
세 배로 담았다



황○정(3775)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 같이 훌쩍
떠나볼래? 나만 따라오면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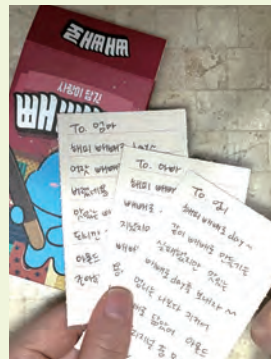
이○명(3600)

카메라 모양 편지지를 보니
옛 추억이 생각나네요.
덕분에 추억 여행했어요.



전○주(4945)

왕 크니가 왕 귀여운
방울이 인형과
작은 방울이 오너먼트!



이○아(3325)

해피 뽀뽀로 DAY!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



서○를(8815)

제 소원은 방울이만
볼 수 있도록
몰래 적어 두었습니다~



편지지 만들기

1. 점선을 따라 도안을 뜯어낸다.
2. 편지지에 짧은 새해인사를 적은 다음 도안 안쪽면이 위를 보도록 뒤집어 둔다.
3. ㉠면이 서로 겹쳐지게 붙인다.
4. 3번을 기동면 뒷쪽의 ㉠에 붙이고 ㉡는 동일하게 ㉢에 붙인다.
5. 가운데 날개면을 동그랗게 말아 ㉢을 붙인다.
6. 기동면 손잡이가 맞붙도록 ㉣을 붙인다.

설날편 방울이 편지지

내 맘대로 활용하는 인증샷 이벤트

방울이 편지지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내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방울이 유리컵을 보내드립니다.



경품
방울이 유리컵
(5명)

참여 방법 QR코드로 제출
접수 마감 1월 20일
선물 발송 1월 31일



응모하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새해 복을 듬뿍 담아
마음을 전달하세요

편지지 도안은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웹진 바로가기

<물, 자연 그리고 사람> 1월호 올해는 꼭 지킬 거거든요 새해 다짐 소문내기

새해 다짐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소문을 내 보세요.

새해 다짐을 알려 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커피와 베이글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STEP 1

카카오톡에서
<물, 자연 그리고 사람>
검색 후 채널 추가



구독 QR

STEP 2

1:1 채팅방 클릭



STEP 3

새해 다짐 알려주기

새해 다짐/이름/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벤트 경품 커피+베이글 기프티콘(10명)

접수 마감 1월 20일 / 선물 발송 1월 31일



<물, 자연 그리고 사람>
웹진을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